

12 고통의 울부짖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렘 8 : 21).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새 290장, 통 412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8 : 18~22(참고, 렘 4 : 19-22)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행했으며,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백성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진리를 구하지 않은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의 침략과 고통의 징계뿐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울부짖는 동족의 고통을 바라보며 심히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번뇌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1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18-19, 21절).

2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19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으로 수단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백남선 선교사는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내란으로 수단 국민이 서로 싸우며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비참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는 TV를 끄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란으로 고통받는 저들의 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네가 나를 위로해 달라. 그들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니 네가 나를 위로해 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치 않으시는, 세상과 무관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히 7:24).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세계 곳곳에 가득한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악한 길을 떠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걷겠습니다.”

봉헌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새 143장, 통 141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고통과 무게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